

2014년 3/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동향

박희석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2014년 3/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동향

	요약	3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II.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III.	요약 및 시사점	22
	부록 : 2014년 3/4분기 주요 조사결과	24

박희석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02-2149-1227
hspark@si.re.kr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

서울의 산업생산은 2014년 5월 -4.8%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자본재 및 모 든 재별 생산이 상승하여 최근 5개월간 평균 2.6%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2014년 6월 -0.3%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7 월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최근 5개월간 평균 5.4%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4년 6월 -0.1%로 성장률이 하 락하였으나 7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0.3% 소폭 상승한 5,157명을 기록하였다. 특히 청년 층 취업자 수의 증가율은 최근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전년 동월 대비 3.9%가 감소 한 865명을 기록하고 있어 청년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4년 3/4분기에 전(前) 분기 대비 1.2p 상승한 96.3으로 2분기 연속 하락세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1p 상승한 82.9를 기록하였으나 지 수 값이 여전히 80대 초반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재소비지출지 수」는 112.4를 기록하였고,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에서 ‘교육비’는 118.3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심리 개선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체감물가의 완화 지속과 함께 새 학기 준비 등 이 가계 부담 요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3/4분기 「물가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1.0p 감소한 133.6으로 2008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체감물가 상승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상황전망지수」는 0.3p 상승한 86.2로 개선 폭이 크지 않 아 향후 고용시장에 대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일자리 및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미래 성장의 기반을 강화

서울의 적극적인 고용 성장을 위해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재능 계발 및 경험 훈련 등을 통한 청년 취업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구로·가산 중심의 G밸리, 상암DMC·수색과 동대문 지역을 중심으로 한 5대 창조경제 거점을 육성하고 서울 형 제조업 지원을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서울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강화해야 한다. 증가하고 있는 서울의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심리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민층에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는 회복세를 기대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최근 2개월 연속하여 상승

- 자본재, 중간재의 생산 증가로 최근 5개월간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평균 2.6% 증가
- 「산업생산지수」는 2014년 5월 -4.8%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하여 최근 5개월간 평균 2.6%를 유지
- 자본재 및 모든 재별 생산이 2014년 6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7월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7.5%를 기록
- 부문별로 자본재와 중간재, 소비재 생산은 2014년 7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6.2%, 7.2%, 4.5%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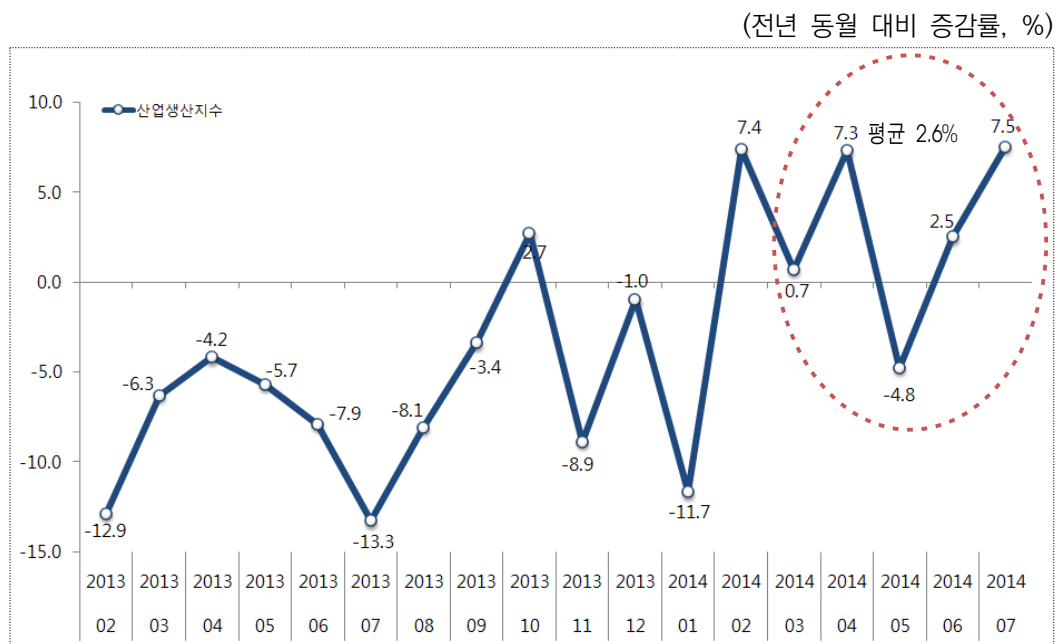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

자료 : 통계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최근 5개월간 평균 5.4%가 증가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4년 7월 전년 동월 대비 8.5%가 증가
- 부문별로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13.5%를 기록하여 대형마트 위주로 판매액지수가 증가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가율은 2014년 6월 -0.3%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7월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5개월간 평균 5.4% 증가
- 2014년 상반기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실생활용품의 소비를 중심으로 전년도에 비해 평균 3~4%p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변화가능성이 높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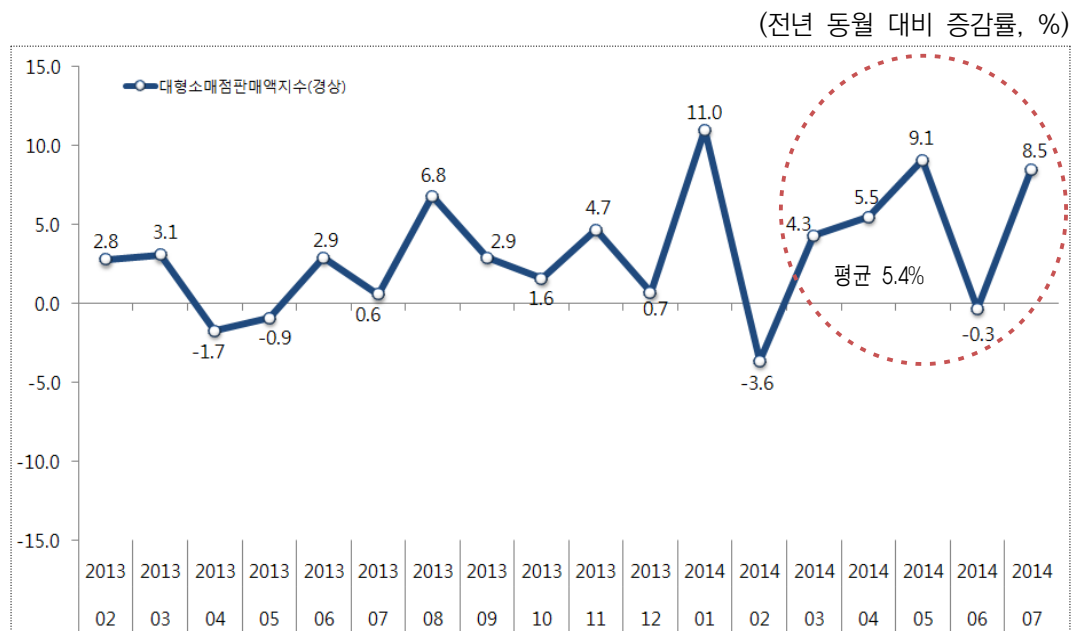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자료 : 통계청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하나 청년층은 하락

- 2014년 7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가 증가한 5,157명
 - 「취업자 수」의 증가율은 상반기 상승폭이 감소하며 2014년 6월 -0.1%로 성장률이 하락하였으나 7월 들어 소폭 상승세로 반전
- 2014년 7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9%가 감소한 865명
 -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최근 5개월 평균 -2.1%로 하락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5월(-3.9%) 수준으로 복귀
 - 2014년 하반기 공채의 영향으로 회복 가능성은 있으나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13년 9월 이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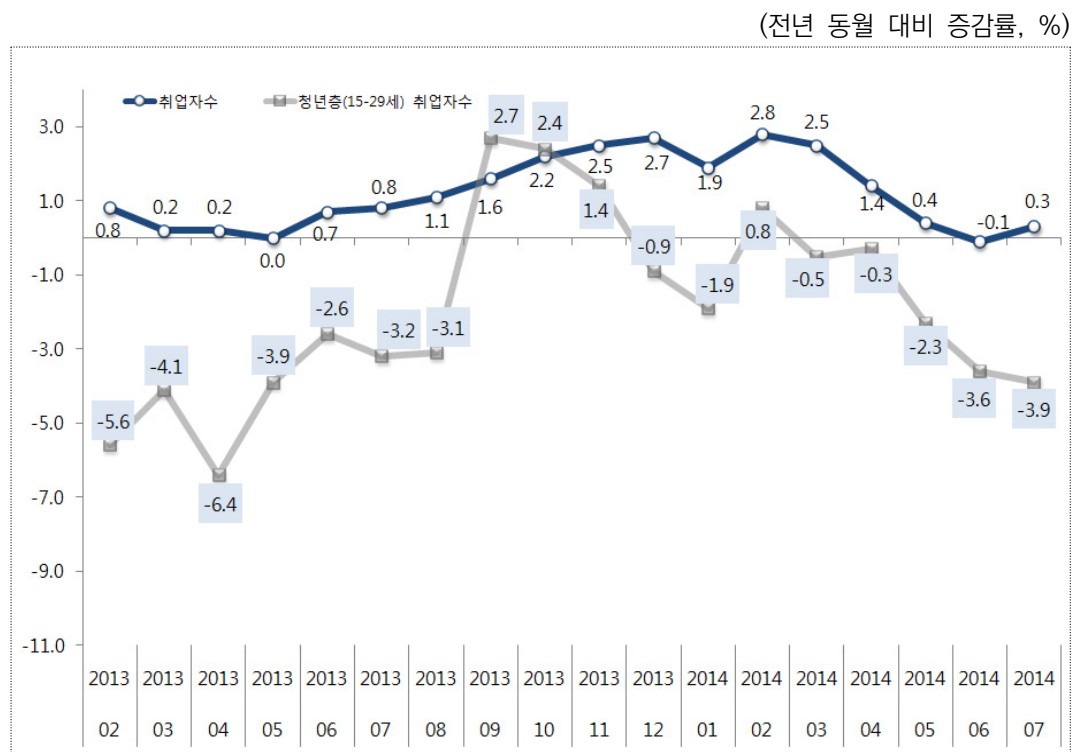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자료 : 통계청

II.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시민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완만한 상승세

서울의 3/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소폭 상승

- 2014년 3/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96.3으로 전(前) 분기보다 1.2p 상승
 -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2013년 4/4분기(102.0) 이후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3/4분기 들어 소폭 상승세로 반전
- 2014년 상반기 세월호 사고 여파 및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체감경기가 하락하였으나 대외 경기 회복세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 등으로 소비 위축 분위기가 완화
 - 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화와 선진국 중심의 세계 경제 회복세로 서울의 경기 또한 당초 예상한 상저하고의 완만한 상승세를 기대
 - 그러나 내수 및 고용의 개선세가 아직 미약하므로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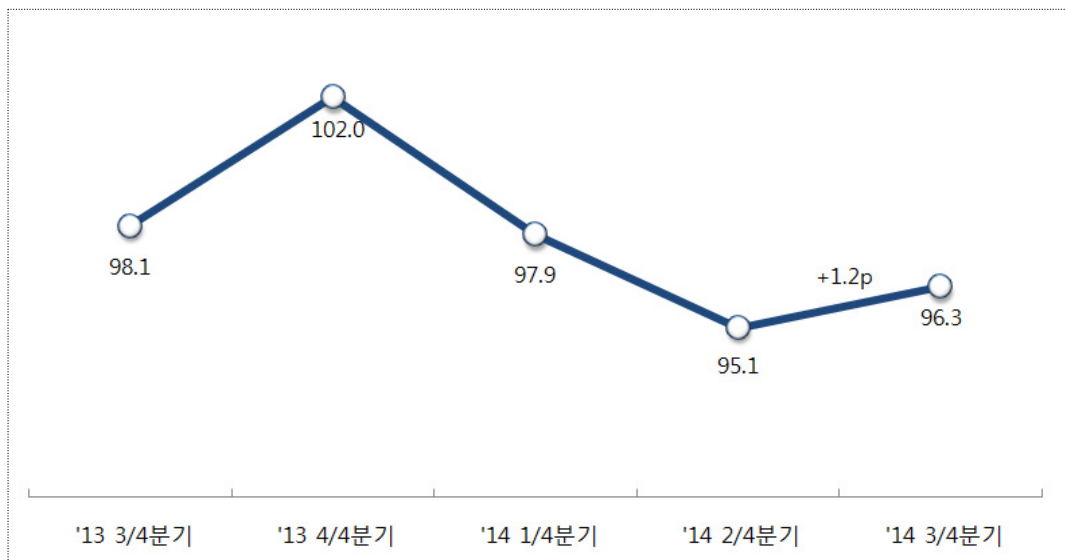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개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표준화지수임.

서울의 현재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도 소폭 상승

- 2014년 3/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1p 상승한 82.9,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와 동일한 97.5를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분기 만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수 값이 여전히 80대 초반으로, 현재 체감하고 있는 생활형편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1년 연속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다가 전 분기와 동일한 97.5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는 다소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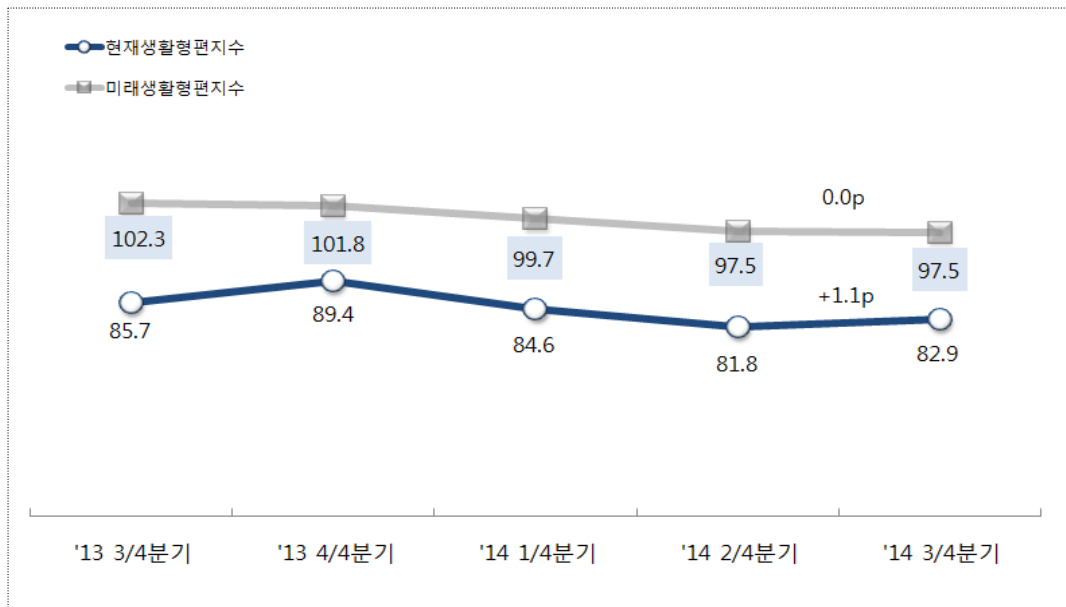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권역별로 보면 도심권의 현재 생활형편이 가장 긍정적

- 서울 전체의 「현재생활형편지수」 82.9보다 높은 지역은 도심권(89.5), 동남권(87.3), 서남권(83.4) 순으로 생활형편을 평균보다 긍정적으로 판단
- 4개 권역의 지수 값은 80대에 머무르는 반면, 서북권은 76.7로 전체 5개 권역 중 현재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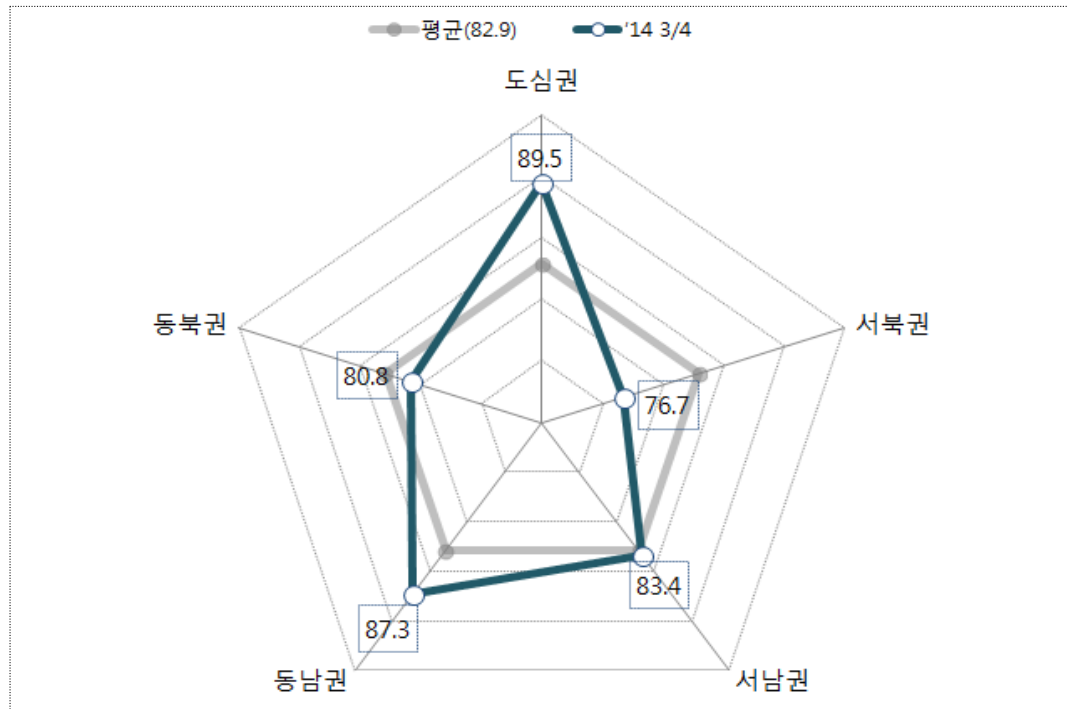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생활형편지수

소득이 높아질수록 현재 생활형편을 긍정적으로 인식

- 소득수준별로 보면 6,001만 원 이상의 소득층이 90.8로 현재 생활형편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
- 반면,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층에서는 서울 전체의 「현재생활형편지수」 82.9보다 낮아 평균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생활형편을 부정적으로 인식
- 특히 2,000만 원 이하의 소득계층이 56.3으로 최고치와 34.5p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유지형 대책의 강화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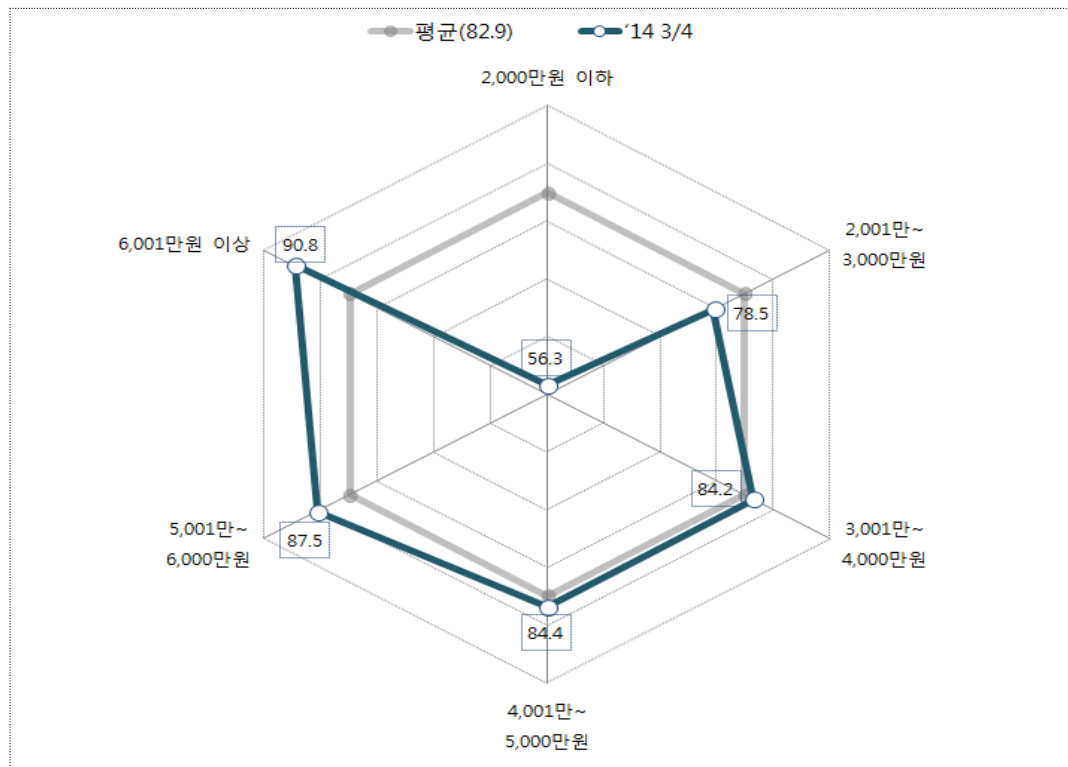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소득수준별 생활형편지수

서울의 현재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상승

- 2014년 3/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1.2p 상승한 60.7을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지난해 4/4분기 71.5 이래로 2분기 연속 하락하다 3/4분기에 소폭 상승하여 현재 경기회복에 대한 부정적 기대감이 소폭 완화
- 2014년 3/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91.9로 전 분기 대비 1.2p 상승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최근 1년간 기준치(100) 이하에 머물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부진하나 3/4분기에 하락세가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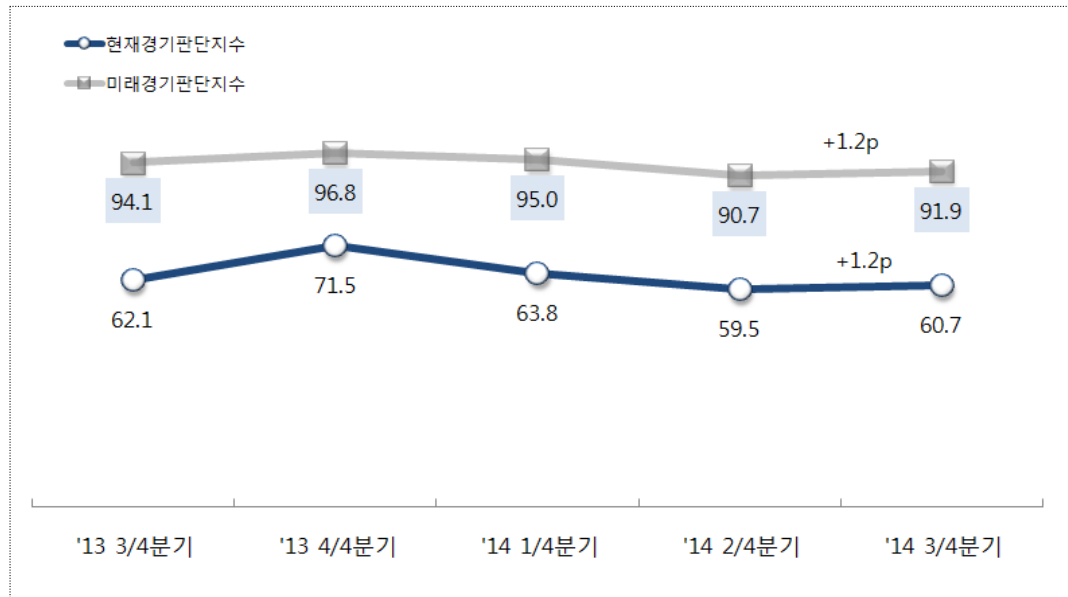


그림 8.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권역별로 보면 동남권에서 현재 경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

- 5개 권역 중 동남권(65.8)과 도심권(63.0)만이 전체 「현재경기판단지수」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며 1년 전 대비 현재 경기를 평균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 반면 동북권(58.5)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경기를 부정적으로 인식

3,001만~4,000만 원 계층에서 현재 경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

- 소득수준별로 보면, 3,001만~4,000만 원(67.2)의 소득계층과 2,001만~3,000만 원(66.1), 4,001만~5,000만 원(64.8)의 소득계층에서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현재 경기를 긍정적으로 평가
- 반면 6,001만 원 이상(55.3)과 2,000만 원 이하(54.2) 계층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소득수준에서는 최고값과 최저값의 격차가 13.0p를 보이고 있으며, 2,000만 원 이하와 6,001만 원 이상 계층의 현재 체감경기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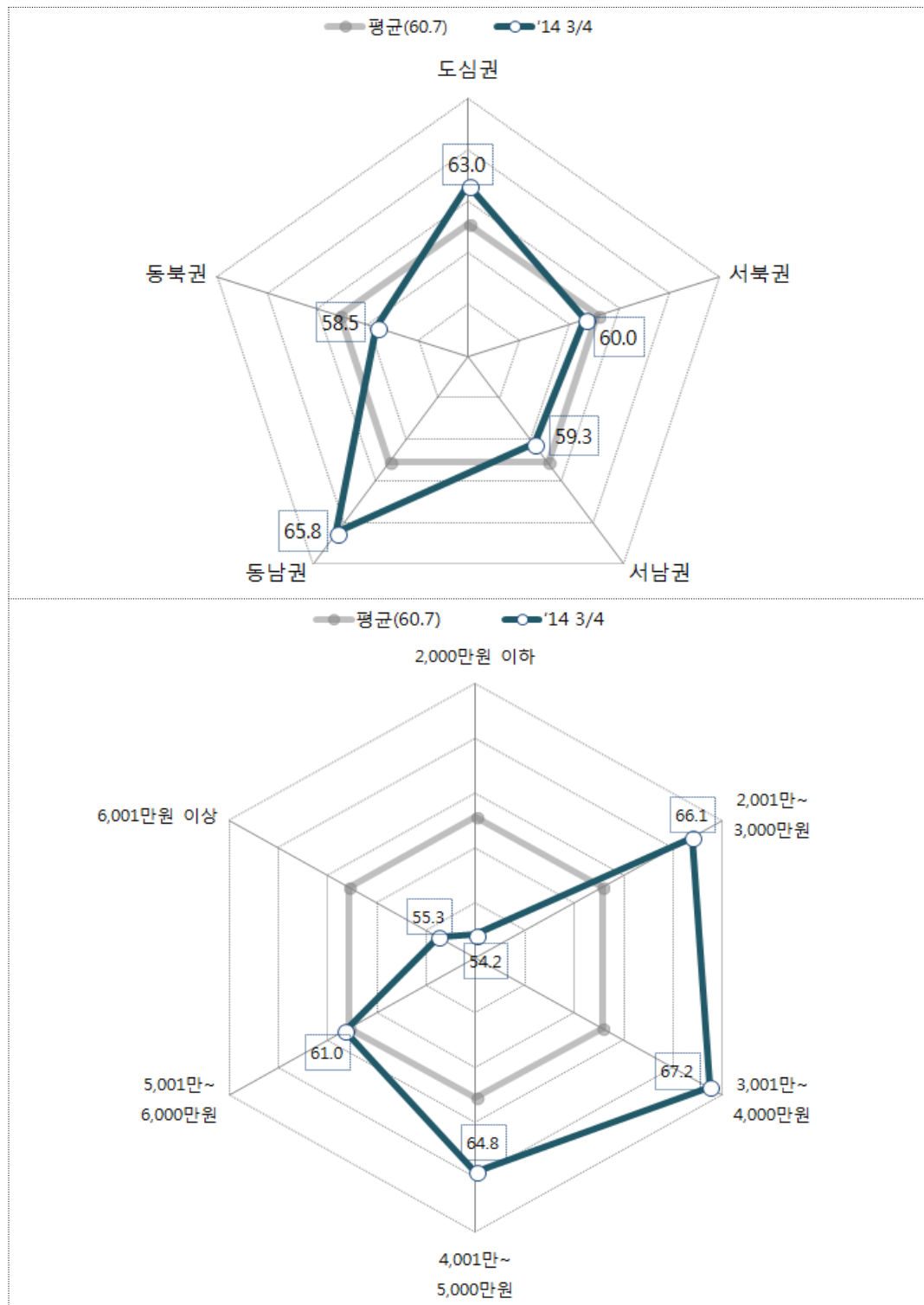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권역별, 소득수준별 경기판단지수

서울의 현재와 미래 소비지출은 모두 주춤

- 2014년 3/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2.4로 기준치(100)를 상회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년 전에 비해 현재 소비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전 분기 대비 2.1p 감소하며 2분기 연속 하락세
- 2014년 3/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와 동일한 99.7을 기록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1/4분기에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2분기 연속 99.7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소비에 대한 기대는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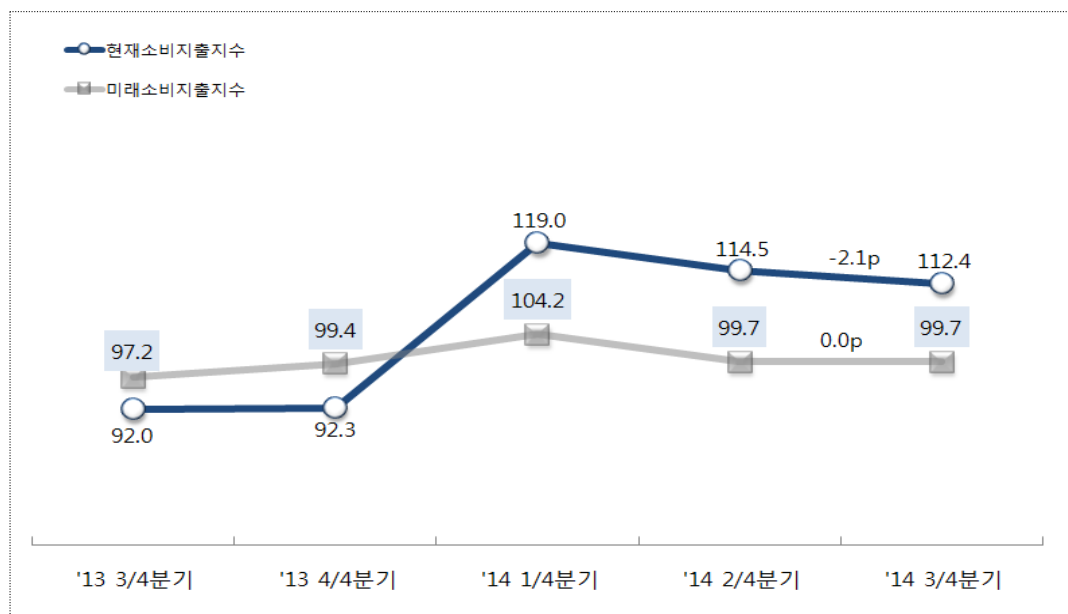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2014년 조사부터 해당 질문의 문맥이 바뀌어 기존 지수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품목별로 보면, 교육·주거·통신비에서 지출이 증가할 전망

- 전 분기에 비해 ‘교육비’는 1.4p 증가한 118.3, ‘주거비’는 0.7p 상승한 103.0, ‘교통/통신비’는 1.0p 상승한 102.1을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상회
- ‘교육비’는 지난 분기에 감소하였으나 다시 소폭 상승하며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는데 2학기 시작에 따른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
- ‘교육비’에 이어 ‘주거비’와 ‘교통/통신비’가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출 계획은 여전히 증가할 전망
- ‘의류비’는 전 분기 대비 2.7p 하락한 85.8, ‘문화오락비’는 전 분기 대비 0.2p 감소한 90.9, ‘식료품비’는 0.1p 하락한 98.2를 기록
- 지난 분기 ‘문화오락비’의 하락폭(-5.8p)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반면, 3/4분기에는 ‘의류비’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의류 관련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문화오락비’와 ‘식료품비’는 소폭 감소세로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지출은 늘어나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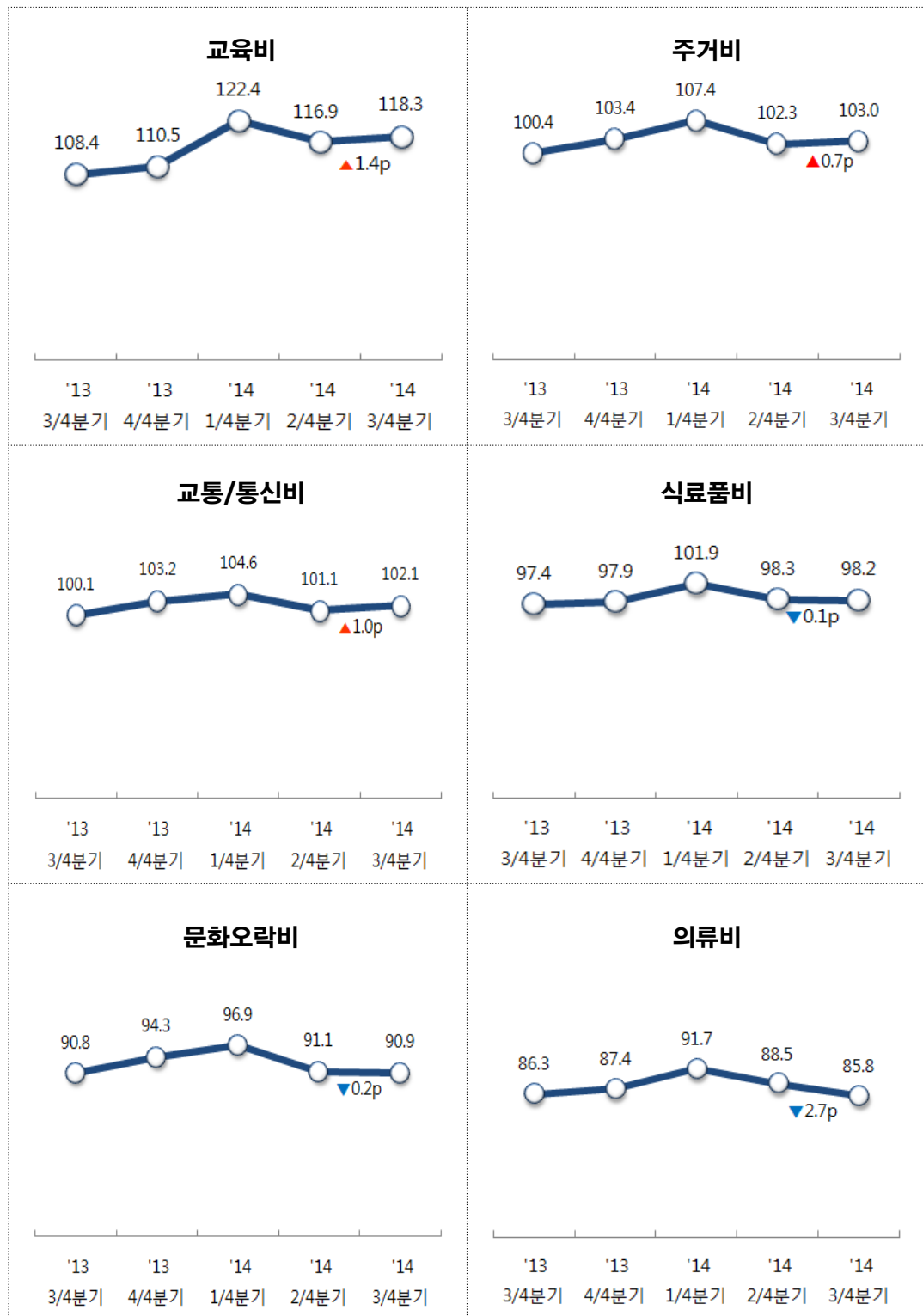


그림 11.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의사는 소폭 상승세

- 2014년 3/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3p 상승한 95.8을 기록
 - 2013년 4/4분기(99.1) 이후 소폭 상승세로 반전하여 1/4분기 수준으로 복귀하였으나 여전히 내구재에 대한 소비심리는 유보적
- 「주택구입태도지수」는 99.9를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0.3p 상승
 - 지난 분기 기준치(100) 이하로 하락한 후 0.3p 상승한 99.9로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어 주택구입에 대한 기대심리는 미미한 개선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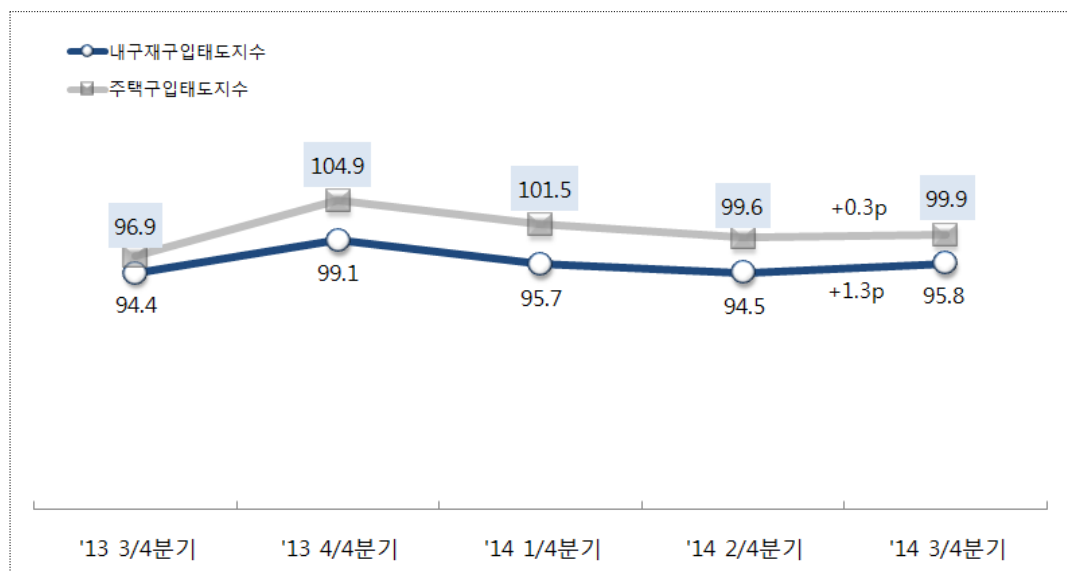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권역별로는 서남권의 내구재구입에 대한 기대가 가장 긍정적

- 서남권(99.6)과 동남권(97.9)의 내구재구입태도는 전체 지수 95.8보다 상회하고 있어 타 권역에 비해 현재가 내구재구입시기로 적절한 것으로 인식
 - 반면 서북권(86.6)에서의 내구재구입에 대한 기대치는 전체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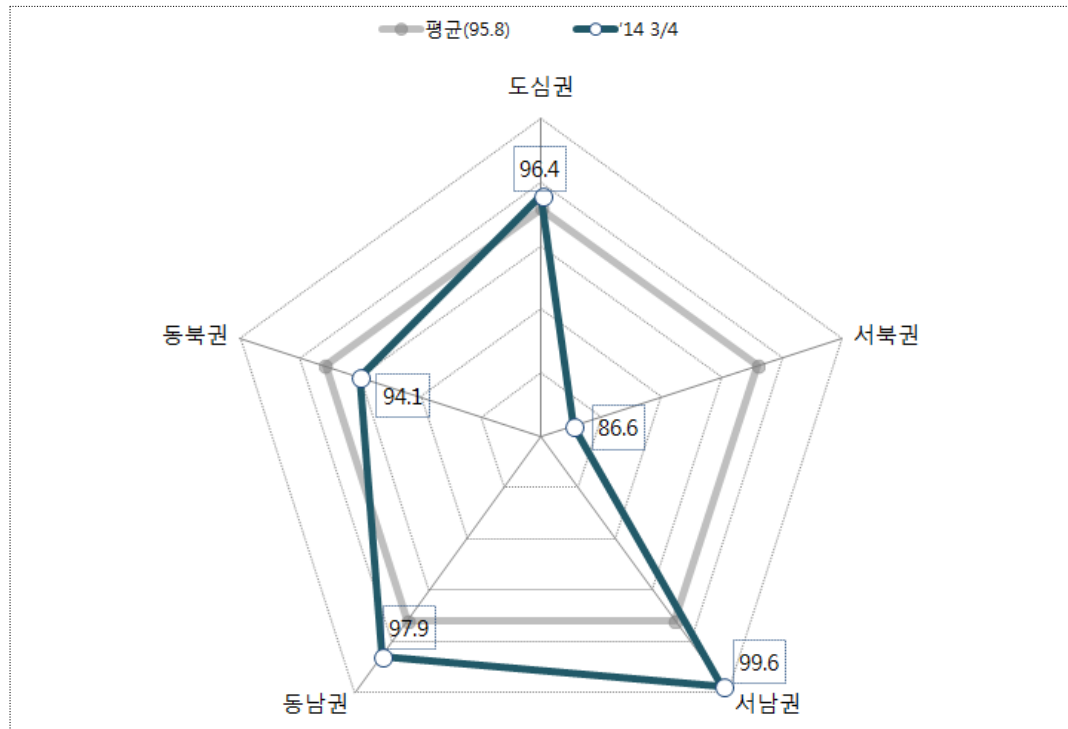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의 권역별 내구재구입태도지수

3,001만~4,000만 원 계층의 내구재구입태도가 가장 긍정적

- 3,001만~4,000만 원(101.3)의 소득계층과 6,001만 원 이상(97.7), 5,001만~6,000만 원(96.7)과 2,001만~3,000만 원(96.4) 소득계층에서의 내구재구입태도가 전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
- 특히 3,001만~4,000만 원의 소득계층에서 「내구재구입태도지수」가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중소득계층 사람들의 내구재소비태도는 긍정적으로 조사
- 반면 2,000만 원 이하 소득계층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85.4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구재 구입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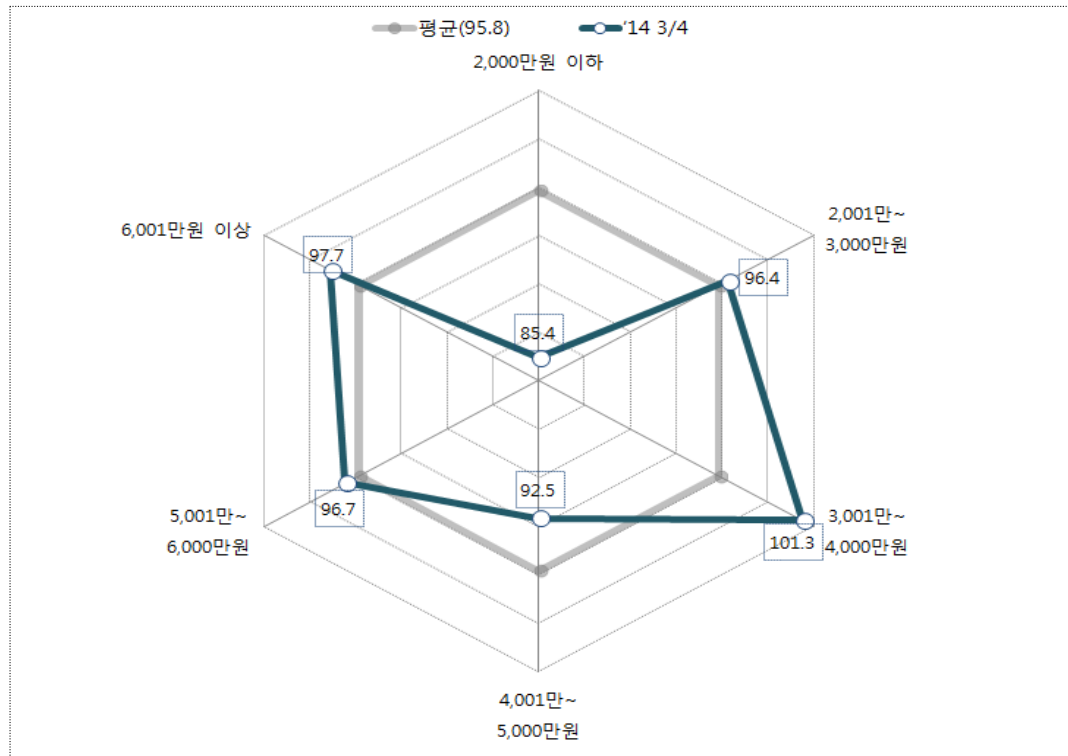


그림 14. 서울의 소득수준별 내구재구입태도지수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주택구입시기에 대한 기대가 가장 긍정적

- 동북권과 동남권, 도심권에서 「주택구입태도지수」가 각각 102.3과 102.1, 100.9를 기록하며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어 주택구입시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 반면, 서북권과 서남권은 각각 91.1, 98.8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주택구입시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동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

2,001만~3,000만 원 계층의 주택구입시기 체감이 가장 긍정적

- 소득수준별로 보면, 2,001만~3,000만 원(108.5)의 소득계층에서 주택구입시기에 대한 태도가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가장 긍정적
- 반면, 고소득층은 모두 기준치(100) 이하인 가운데 4,001만~5,000만 원(92.4)의 소득계층에서 현재 주택구입시기를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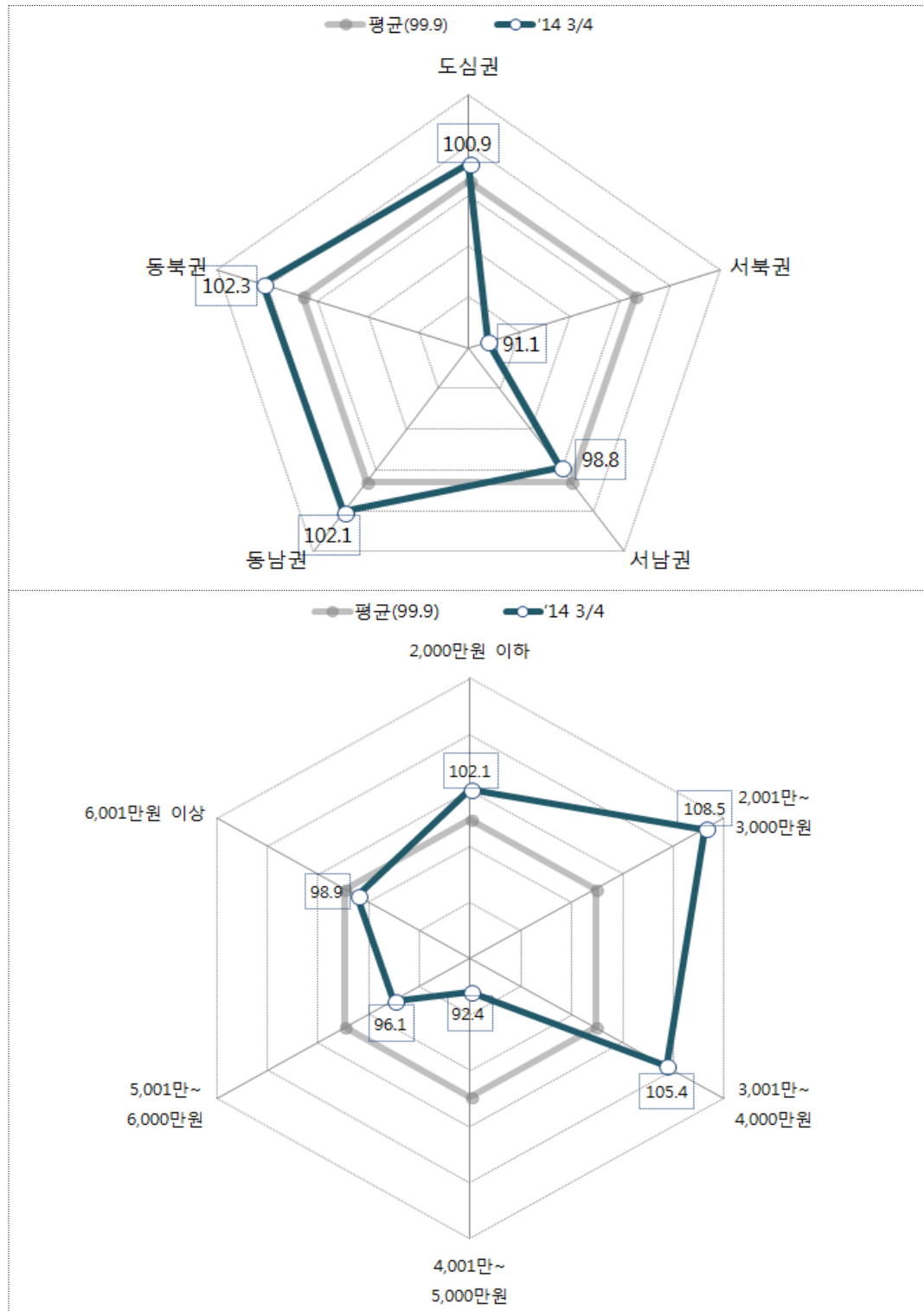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의 권역별, 소득수준별 주택구입태도지수

고용상황을 제외한 체감물가와 순자산은 소폭 하향세

- 2014년 3/4분기 「순자산지수」는 전 분기 대비 0.6p 하락한 96.1로 지난 1/4분기 수준으로 복귀하여 5분기 평균 96.3을 유지
- 2014년 3/4분기 「물가전망지수」는 전 분기보다 1.0p 감소한 133.6으로 향후 체감 물가의 상승세가 완화
 - 최근 물가상승률이 1%대를 기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 또한 높지 않아 2008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
- 2014년 3/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86.2로 전 분기 대비 0.3p 소폭 상승
 - 최근 5분기 연속 「고용상황전망지수」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80 중반대에서 정체하고 있어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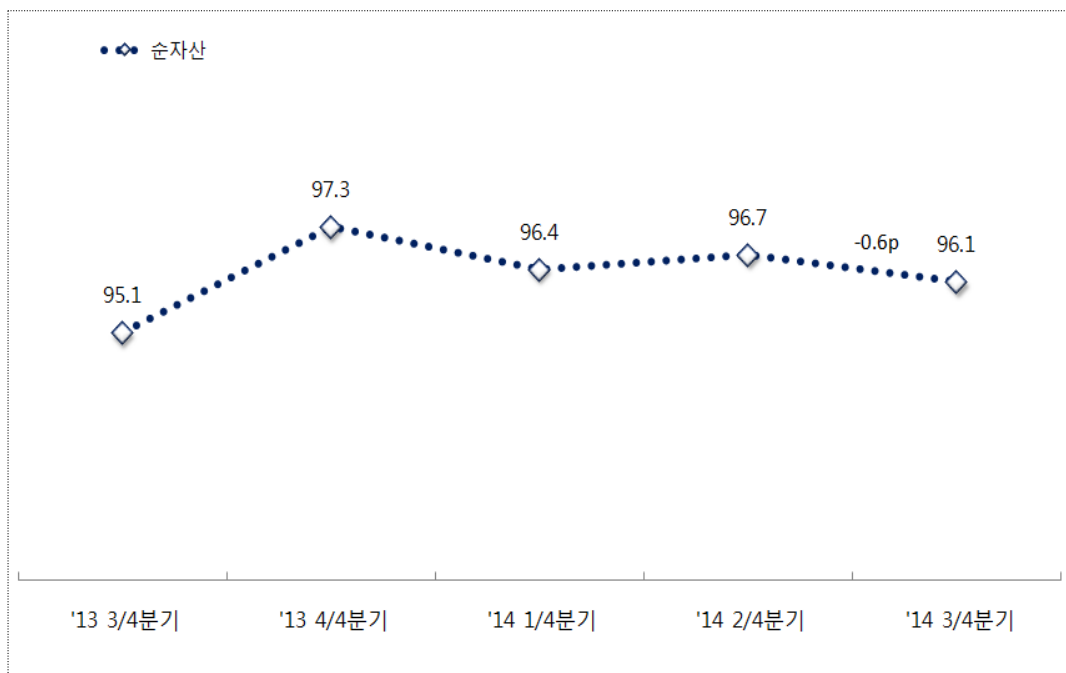


그림 16. 서울의 순자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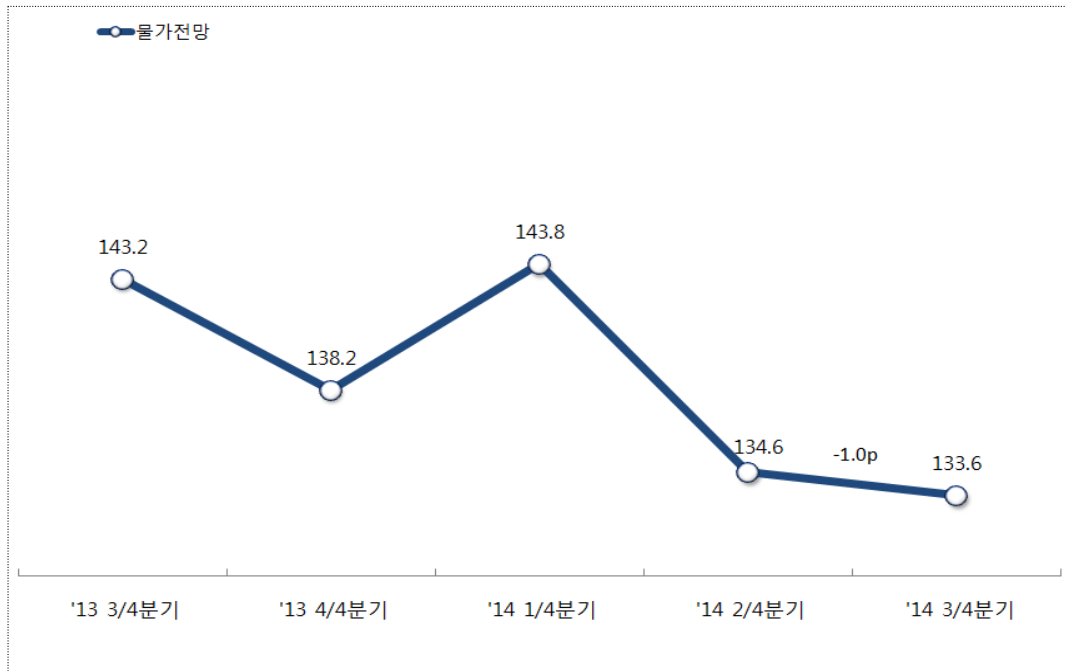


그림 17. 서울의 물가예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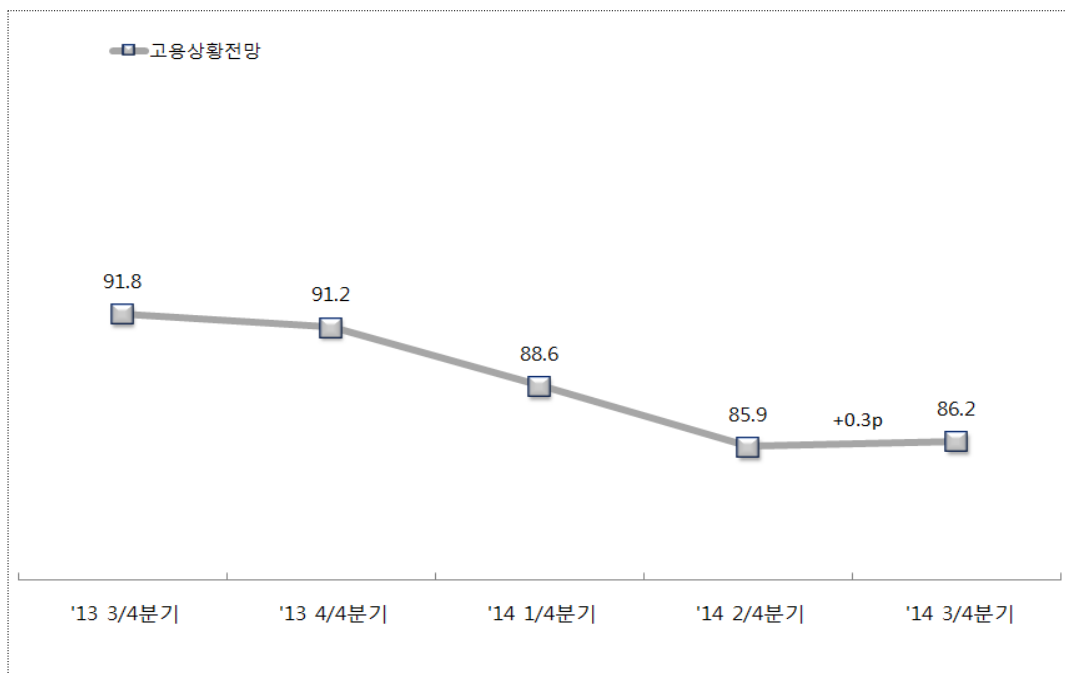


그림 18. 서울의 고용전망지수

III. 요약 및 시사점

2014년 3/4분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소폭 상승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는 상승

- 산업생산과 대형마트 중심의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청년 고용은 하락세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2014년 7월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율을 기록하며 최근 5개월간 평균 2.6%를 유지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4년 7월 전년 동월 대비 대형마트는 13.5%, 백화점은 3.5% 성장을 보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최근 5개월간 평균 5.4%를 기록
-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세로 2014년 7월 0.3% 증가한 5,157명이 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3.9% 감소한 865명

시민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상승

-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4년 3/4분기에 96.3으로 전 분기 대비 1.2p가 증가
- 2014년 3/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1p 상승한 82.9, 「현재경기판단지수」는 1.2p 상승한 60.7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기준치(100) 이하로 현재의 생활형편 및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2.4를 기록하였고,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에서는 ‘교육비’와 ‘주거비’, ‘교통/통신비’가 전 분기 대비 상승하여 각각 118.3, 103.0, 102.1을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상회
- 체감물가 하락세 등으로 소비지출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폭은 크지 않아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강화가 필요

안정적인 일자리 및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

청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한 시책 및 지원이 필요

- 서울의 적극적인 고용 성장을 위해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과 장기적인 청년 취업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
- 2013년에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던 취업자 수의 증가율은 2014년 상반기에 감소
세를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
- 일찍부터 재능을 계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장치를 마련하여 청년층이 대기업이
나 일부 직종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

5대 전략거점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향상

- 5대 창조경제 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
- 구로·가산 중심의 G밸리와 상암DMC·수색과 동대문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산업 등
반성장을 위한 창조경제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서울형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도심형 제조업의 산업기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한 전략
적 접근이 필요
- 서민들의 소득여건 개선과 서민금융 지원책을 통하여 가계부채의 부담을 최소화
- 서울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금리인하 및 주택보조 정책 등과 함께 가
계부채 부담이 소비심리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과 부채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자리 창
출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방안을 마련

부록 : 2014년 3/4분기 주요 조사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3년 3/4분기	98.1	85.7	102.3	62.1	94.1	94.4	96.9
2013년 4/4분기	102.0	89.4	101.8	71.5	96.8	99.1	104.9
2014년 1/4분기	97.9	84.6	99.7	63.8	95.0	95.7	101.5
2014년 2/4분기	95.1	81.8	97.5	59.5	90.7	94.5	99.6
2014년 3/4분기	96.3	82.9	97.5	60.7	91.9	95.8	99.9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3년 3/4분기	92.0	97.2	95.1	91.8	143.2
2013년 4/4분기	92.3	99.4	97.3	91.2	138.2
2014년 1/4분기	119.0	104.2	96.4	88.6	143.8
2014년 2/4분기	114.5	99.7	96.7	85.9	134.6
2014년 3/4분기	112.4	99.7	96.1	86.2	133.6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를 대상으로 매분기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pm 3.1\%$ 임(2014년 3/4분기 조사 시점은 2014년 8월 중하순).